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1월 13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산업부 디자인생활산업과 이종석 과장(044-203-4370), 김태훈 사무관(044-203-4374)

생활명품 육성을 통해 생활산업의 부활을 꿈꾼다.

- 산업부·롯데그룹 공동으로 한국産 생활명품 육성 추진 -

□ 향후 100년 이상을 선도할 생활명품을 육성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: 윤상직, 이하 산업부)와 롯데그룹이 손을 잡았다.

□ 산업부와 롯데그룹은 지난 '13년 12월 4일 MOU를 체결, 우수 제품을 발굴하여 세계적인 명품으로 육성하고자 '글로벌 생활명품 육성 프로젝트'를 추진하고 있음

○ 이를 위해, '13년 12월부터 혁신적이고 명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중소·중견 기업으로부터 공모를 받아 1월 10일 마감한 결과, 약 428개 제품이 접수 되었음

* 부분별로는 주얼리·시계·패션 117개, 문구·완구 38개, 가구·공예 85개, 레져·가방·신발 29개, 기타 159개 품목임

□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제품은 각 계 전문가(유통, 디자인, 브랜드 등)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평가를 통해 3~5개의 명품화 후보제품을 선정할 계획임

* 총 10명 내외의 심사위원이 3단계의 심사(서류, PT 등)를 진행하여 선정

□ 선정된 명품화 후보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이 글로벌 생활명품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롯데그룹이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임

○ 우선, 산업부는 선정제품에 대한 생산에서 판매까지 이르는 全과정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

- 제품과 관련한 디자인 컨설팅, 국내외 전시회 출품, 연구개발(R&D), 패키징 등에 대해 '14년 하반기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며,

- 특성에 따라 일부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, 공공기관, 주요 그룹 등에서 귀빈대상 고급 선물용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

○ 롯데그룹은 전문 MD의 심사참여, 사업화 컨설팅 등을 지원하며 롯데그룹이 보유한 全유통채널(백화점, 마트, 홈쇼핑, 면세점)에서 시범판매 후 그 성과를 토대로 장기적으로는 해당 기업의 제품이 유통채널에 입점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

□ 동 사업을 통해 우수제품을 보유하고 있지만 디자인, 유통망, 홍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·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사다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됨

□ 생활산업 분야는 '60~'70년대 수출 주력산업이었으나, 중공업·IT 육성정책 및 국내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으로 산업이 전반적으로 축소되어 있는 상황

*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: 7.0%('96년) → 3.7('00년) → 1.8%('11년)

□ 하지만,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욕구 변화 및 한류확산 등에 따라 향후 고부가가치 창출이 유리한 분야로 산업전반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예측되는 부분이기도 함

○ 특히, 전통적인 산업에 IT 및 디자인 등이 융합된다면 창의적인 변화가 가능하며, 시장 트랜드에 민감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을 주로 하는 중소·중견기업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함

□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"창조경제가 국민생활 속에 구현되고, 침체된 생활산업의 전환기를 마련하고하는 측면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,

○ 나아가, 생활산업을 21세기 고부가가치 창의산업으로 재도약 시키기 위해 「생활산업 고도화 전략」을 수립, '14년 하반기 중으로 발표할 예정"이라고 밝힘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디자인생활산업과 김태훈 사무관(☎ 044-203-43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